



소개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

리베르소의 아르데코 정신을 새롭고 화려하게 재해석한
대담하고 여성스러운 모델

발레드주에 위치한 매뉴팩처의 메티에 라르 ™ 아틀리에에서 제작

주요 특징:

- 정교한 켄세팅: 40 시간의 작업으로 277 개의 다이아몬드(약 1.59 캐럿) 세팅
-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푸 에나멜: 15 번의 가열 과정에 60 시간의 에나멜링 작업 소요
- 리미티드 에디션: 10 피스

아르데코 디자인의 아이콘으로 인정받은 리베르소는 여성스러운 리베르소 원 컬렉션을 통해 예술적인 장식을 위한 특별한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2025 년, 그랑 메종은 2023 년에 처음 선보인 에나멜과 켄세팅의 걸작인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를 재해석했습니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18K, 750/1000)에 세팅된 이 새로운 타임피스는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됩니다.

기하학적인 아르데코에서 영감을 얻은 모델

1931 년에 처음 출시된 리베르소는 아르데코 디자인의 전형적인 예로 주목받았습니다. 폴로 경기장에서 착용하기 위해 제작되었던 이 모델은 출시 1 주년이 되기도 전에 여성스러운 디자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능과 디자인을 실용적면서도 우아하게 결합한 리베르소의 뒷면 메탈 케이스는 착용자가 메시지를 인그레이빙하거나 래커 모티프로 자유롭게 맞춤 제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메종은 양면 케이스(특허 Ch159982)를 통해 독창적인 기회를 탐구하고 개발하여 장식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에 화려하게 장식된 케이스는 그 기원과 아르데코 스타일에 경의를 표합니다. 1920년대 중반에 등장한 아르데코 운동은 1925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현대산업예술전(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écoratifs)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실제로 명칭이 정립된 시기는 수십 년 후입니다). 아르데코는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극적인 변화를 불러온 사회 및 문화적 격변기를 거치며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깔끔하고 강렬한 선의 강조를 통해 생동감 넘치면서도 우아함을 표현한 아르데코 스타일은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든 자유와 hedonism(쾌락주의)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표면 장식은 평행선과 직선형 모티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웨브론 패턴과 지그재그 형태를 연출한 후, 컬러 블록과 화사한 메탈 디테일을 추가해 오늘날까지도 바라보는 이들을 매료시키는 역동적인 패턴을 완성하였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숙련된 장인들은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에 그들만의 탁월한 디자인 언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탁월한 수준의 장식 공예

케이스백 전체와 케이스 측면에서 다이얼 프레임까지, 매끄럽게 감싸주는 화려한 기하학적 패턴의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는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과 다이아몬드 세팅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식은 정교한 기술력과 다양한 수공예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난이도 높은 작업입니다.

첫째, 켄세팅 부분을 매우 정확하게 그려야 합니다. 에나멜링 작업을 할 나머지 부분은 파내어 완벽하게 균일하고 평평한 표면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에나멜 깊이와 컬러의 강도에 차이가 없게 됩니다. 에나멜링을 시작하려면 화이트 골드 케이스 메탈을 아교 에나멜을 사용해 밀폐한 후 가열합니다. 그 후, 멀티컬러 디자인을 채색하기 위해 다이얼 표면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랑 메종의 에나멜 장인은 깨끗한 다이얼 위에 두 겹의 불투명 화이트 에나멜을 바르고 건조시킨 후 가열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에나멜 장인은 눈에만 의지하여 기하학적인 디자인 형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켄세팅할 돌출된 직사각형은 에나멜 처리할 삼각형 및 직사각형의 각도와 치수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복잡한 패턴의 경우 인접한 모양이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케이스 측면부터 다이얼 가장자리까지 디자인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합니다.



패턴이 완성되면 채색을 시작합니다. 에나멜 장인들은 끝이 얇고 뾰족한 흑담비털 브러시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다채로운 컬러를 페인팅합니다. 각각의 컬러가 의도한 그대로 그윽하고 깊이 있는 색채가 될 때까지 한 겹을 바르고 가열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가열을 마치고 나면 투명한 아교를 여러 번 덧바릅니다. 마지막 코팅 과정은 컬러에 깊이를 더해주고 선명함을 유지해줍니다. 코팅 후 견고해진 표면은 유리처럼 매끈하게 빛나는 광채를 연출하기 위해 핸드 폴리싱 처리합니다. 투명한 에나멜 층으로 보호하는 미니어처 페인팅은 제네바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완벽하게 익히려면 보통 5 년 이상의 에나멜링 작업 경험이 필요합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의 오목한 케이스 측면과 평평한 케이스백을 동시에 에나멜 처리하는 작업은 매우 까다로운 공정인데, 이는 가열하는 과정에서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기 다른 에나멜 농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팔레트의 물감을 사용하는 것처럼 에나멜 장인들은 금속 산화물로 색을 낸 각종 안료를 혼합시켜 정확히 원하는 컬러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랑 퓨 에나멜의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800°C에서 가열된 일부 안료의 컬러는 예상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나멜 장인은 수년간의 경험과 세심한 실험을 통해서만 결과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의 케이스는 최대 15 번의 가열 과정 및 200°C에서 여러 차례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가열 과정 사이의 건조 시간을 제외하면 에나멜링 작업에는 60 시간이 걸립니다.

에나멜 공정을 마친 리베르소 케이스는 다이아몬드가 완벽하게 세팅되도록 켄세팅 장인들에게 전달됩니다. 장인들은 그레인 세팅 테크닉을 사용하여 평평한 메탈 표면에 초소형 화이트 골드 클로(claw)를 들어올려 켄스톤을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완성한 에나멜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에나멜을 입힌 부분과 켄스톤을 세팅한 구역을 구분하는 직선 라인을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를 장식하는 277 개의 다이아몬드(1.59 캐럿)를 세팅하는 데는 40 시간의 세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장식 공예 기술을 전담하는 아틀리에가 있다는 사실은 그랑 메종만의 특별한 장점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마스터한 장인들은 매뉴팩처의 지붕 아래에서 창의적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의 새로운 재해석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의 영롱한 화이트 마더오브펄 다이얼은 에나멜 처리된 프레임의 반짝이는 컬러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가드룬 및 러그와 눈부신 조화를 이루며 우아한 품격을 이끌어냅니다. 다이얼에는 각 모서리에 장식된 폭이 좁은 브래킷을 비롯해 리베르소 원 주얼리 모델을 상징하는 전사 처리된 숫자와 도피네 핸즈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리버스 세팅 다이아몬드가 와인딩 크라운을 장식하며, 유광 화이트 악어 가죽 스트랩으로 손목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 케이스를 뒤집으면,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는 6 가지 다채로운 에나멜 컬러와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반짝이는 하이 주얼리로 변신합니다. 아르데코 스타일을 대표하는 그레이, 모브, 핑크의 세 가지 파스텔 컬러는 케이스의 화이트 골드 컬러와 어우러지며, 다크 퍼플, 화이트, 옐로우 컬러와의 대비를 통해 시각적 환상을 만들어내어 깊이와 움직임 강조합니다. 옐로우와 핑크 컬러의 사용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컬러들은 모든 에나멜 안료 중에서 *그랑 푸* 공정에 필요한 고온 가열 시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의 케이스 내부에서 힘차게 박동하는 핸드 와인딩 칼리버 846 은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개발과 제작의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칼리버는 예거 르쿨트르의 초기 철학에 따라 직사각형 케이스의 형태에 맞춰 디자인되었습니다.

기능과 디자인, 최고급 워치메이킹을 결합하여 여성적 감성으로 대담하게 재해석한 매혹적인 주얼리이자 시간을 알려주는 리베르소는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장식 공예와 주얼리 전문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시계 사이즈: 40 x 20mm, 두께: 9.09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6

파워 리저브: 50 시간



기능: 시간-분

다이얼: 마더오브펄

케이스백: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277 개의 다이아몬드(약 1.59 캐럿)

스트랩: 화이트 엘리게이터 가죽, 교체 가능한 더블 폴딩 버클

제품 번호: Q3293433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위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9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위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위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위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